

KIA 양현종, 역대 두 번째 통산 180승...최초 2100탈삼진도

올시즌 6차례 등판서 단 1승 못거두며 아홉수 겪어
2007년 입단...2009년부터 풀타임 선발 투수 활약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지독한 아홉수를 겪고 KBO리그 역대 두 번째로 180승 고지를 밟았다.

양현종은 5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솔뱅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 5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다.

96개의 공을 뿌린 양현종은 삼진 5개를 잡았고, 볼넷은 2개를 내줬다.

KIA가 13-1로 크게 앞선 7회말 김건국에 마운드를 넘긴 양현종은 팀이 그대로 이기면서 시즌 첫 승이자 개인 통산 180번째 승리를 품어 안았다.

10번째 도전 만에 180승을 재웠다.

지난해 9월3일 LG 트윈스전에서 179번째 승리를 신고한 양현종은 이후 3경기에 등판했으나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올 시즌에도 앞서 6차례 등판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며 지독한 아홉수를 겪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통산 2097탈삼진으로 이 부문 1위를 달린 양현종은 KBO리그 사상 최초로 2100탈삼진도 썼다.

개인 통산 180승을 거둔 것은 양현종이 210

승을 거둔 송진우(전 한화 이글스)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양현종이 거둔 180승 중 178승이 선발승으로, 이미 KBO리그 최다 선발승 기록이다. 양현종은 2023년 9월1일 통산 164번째 선발승을 작성하면서 163승의 송진우를 넘고 1위로 올라섰다.

2007년 KIA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양현종은 처음 선발 투수로 풀타임 선발 투수로 뛴 2009년 이래 KIA 선발진의 한 축을 떠받쳤다.

2009년 12승을 수확해 처음 한 시즌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한 양현종은 꾸준한 활약을 선보이며 승수를 쌓아왔다. 2014시즌부터 2024 시즌까지 미국에서 뛴 2021시즌과 9승(11패)에 그친 2023시즌을 제외하고 모두 10승 이상씩을 거뒀다.

2017년에는 20승을 수확해 팀 동료인 헨터 노에시와 함께 공동 다승왕에 등극하기도 했다.

양현종은 투수 부문 통산 기록을 하나하나 바꿔가고 있다.

통산 투구 이닝에서 이날 경기까지 2540⅓

이닝을 던져 3003이닝의 송진우에 이어 2위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시즌 연속 170이닝 이상을 던져 사상 최고 기록을 썼다. 2016년에는 200⅓이닝을 던지기도 했다.

통산 탈삼진 순위에서도 1위인 양현종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시즌 연속 100개 이상의 탈삼진을 잡아 연속 시즌 세 자릿수 탈삼진 부문 공동 1위에 올랐다. 올해에도 100개 이상의 삼진을 잡아내면 최초로 11시즌 연속 100탈삼진을 작성한다.

1회말을 삼자범퇴로 끝내며 기분 좋게 출발한 양현종은 2회말 선두타자 야시엘 푸이그를 3루수 땅볼로 잡은 후 흔들렸다. 송성문에 안타를, 오선진에 볼넷을 내줘 1사 1, 2루 위기를 자초했다.

하지만 송지후를 중견수 플라이로, 김재현을 3루수 땅볼로 처리해 실점을 막았다.

양현종은 3회말 선두타자 어준서에 우전 안타를 맞았으나 이용규에 병살타를 유도해 순식간에 아웃카운트를 늘렸다. 이어 루벤 카디네스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4회말 2사 후 송성문에 볼넷을 내준 양현종은 오선진에 중전 안타를 맞아 또 1사 1, 2루에 몰렸다.

그러나 카디네스를 삼진으로 잡고 위기를 넘겼다. 양현종의 개인 통산 2100번째 탈삼진이었다.



4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4회말 KIA 선발투수 양현종이 역투하고 있다.

삼진 1개를 곁들여 5회말을 삼자범퇴로 마무리한 양현종은 6회말 카디네스에 좌중간 안타를 맞았다.

최주환을 우익수 뜬공으로, 푸이그를 삼진으로 잡은 양현종은 송성문에 좌중간 적시 2루

타를 허용해 실점했다. 오선진을 유격수 땅볼로 잡아 추가 실점하지는 않았다.

7회말 김건국에 마운드를 넘겨며 임무를 마친 양현종은 팀이 대승을 거두면서 180번째 승리에 입맞춤했다.

보성녹차마라톤 열려...전국 동호인 마라토너 1만명 참가

폴코스 남자 부문 심진석씨 2시간31분20초92 기록 우승...여자 부문 이정숙씨 3시간11분28초90 기록 1위



보성군은 전국 동호인 마라토너 1만여 명과 군민들이 참여한 '제20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전국 동호인 마라토너 1만여 명과 군민들이 참여한 '제20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대회는 보성군체육회가 주

최하고 보성군마라톤연합회, 전국마라톤협회가 주관했다. 폴 코스, 하프 코스, 10km, 5km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케냐 국적의 전문 마라토너들이

페이스메이커로 뛰었고, 마라토너 이봉주와 선, 이영표, 양세형, 배성재, 허재 등 유명 인사도 참여했다. 배우 송일국과 그의 세상동이 아들인 대한·민국·만세도 함께했다.

김철우 군수와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장·주요 내빈들도 참가했다.

대회에서는 코스별 1위부터 5위까지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됐다. 폴코스 남자 부문에서는 심진석씨가 2시간31분20초92 기록으로 우승했다. 여자 부문에서는 이정숙씨가 3시간11분28초90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보성자율방범연합회, 보성경찰서가 대회장 67곳에 150여 명의 교통안전 인력을 배치, 안전한 대회 관리를 힘썼다. 중·고등학교 자원봉사자 160여 명과 보성군 여성자원봉사협의회 등 행사장 내 관리 인력 170여 명도 대회 운영에 힘을 보탰다.

이광수 보성군체육회장은 "차량 그늘막 5월의 봄날에 길게 이어진 초록빛 메타세쿼이아 길을 전국 마라토너들과 함께 뛸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대회가 도전과 성취의 기쁨은 물론, 군민과 참가자의 건강을 지키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보성=김택순 기자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의 김혜성이 5일(현지 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 1회 말 수비하고 있다. 이날 선발 출전한 김혜성은 5회 초 좌전 안타를 치고 나가 도루를 기록한 후 오타니 쇼헤이의 홈런으로 득점했다.

김혜성, 빅리그 데뷔 '첫 선발 출전' 멀티 안타에 도루까지 맹활약 펼쳐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4타수 2안타

미국 메이저리그(MLB) 데뷔 후 처음으로 선발 명단에 오른 김혜성(LA 다저스)이 타격과 주루에서 모두 맹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김혜성은 6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열린 2025 MLB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다저스와 계약을 맺은 김혜성은 시범경기 15경기에서 타율 0.207(29타수 6안타) 1홈런 3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613에 그치며 결국 마이네리리그 트리플A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지난 4일 발목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토미 에드먼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빅리그로 콜업된 김혜성은 앞선 두 경기에선 대수비와 대주자로만 그라운드를 밟았다.

전날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 9회초 대주자로 1루 베이스를 밟은 김혜성은 도루를 성공시키는 것은 물론, 후속 타자가 스트라이크아웃 아웃 상태로 1루로 달리는 사이 3루까지 채도하는 센스 있는 주루플레이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날 드디어 다저스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김혜성은 늦어진 빅리그 데뷔의 아쉬움을 털어버리며 그라운드를 맹렬히 누볐다.

올 시즌 MLB 성적은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2도루 타율 0.500을 기록 중이다.

팀이 1-0으로 앞선 3회초 선두 타자로 MLB 데뷔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은 상대 선발 샌디 알칸타라의 5구 시속 159km 싱커를 받아쳤으

나 우익수 뜬공으로 몰려났다.

다저스가 3-0으로 리드를 벌인 가운데 5회초 다시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선 김혜성은 시속 155km 빠른 직구를 공략, 좌익수 앞으로 떨어지는 빅리그 데뷔 안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출루가 성공한 김혜성은 곧바로 2루 베이스를 훔치며 두 경기 연속 빠른 발을 자랑했다.

아울러 김혜성은 후속 오타니 쇼헤이의 우월 홈런에 홈 베이스를 밟으며 득점에도 성공했다.

타점감을 잡은 김혜성은 안타 생산을 이어갔다.

점수 차가 5-0으로 벌어진 6회초 2사 1, 2루에 김혜성은 마이애미 볼펜 타일러 필립스의 낮은 체인지업을 밀어 쳐 유격수 킷을 넘기는 절묘한 안타를 만들어냈다. 그사이 2루 주자 앤디 파헤스가 홈을 밟으며 김혜성은 빅리그 첫 타점까지 기록했다.

8회초 1사 주자 3루에 다시 나선 김혜성은 1루수 앞 땅볼로 몰려나며 타점을 추가하지 못했다.

이날 김혜성은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눈도장을 찍었다. 특히 8회말 1사에 불규칙하게 튀어 오른 상대 타자의 타구를 재빠르게 커버하는 인상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저스는 프레디 프리먼과 오타니의 2점 홈런 등에 힘입어 이날 경기를 7-4로 승리했다.

24승 11패를 기록한 다저스는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어린이날 선수 밀친 광주 이정호 감독...과도한 지도 논란

이 감독, 김전전 전반 종료 후 오후성 강하게 질책
오후성 "선수로서 죄송...감독님이 끝나고 안아주세요"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의 이정호 감독.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1 광주 FC 이정호 감독이 소속팀 공격수 오후성을 공개 질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불미스러운 장면은 지난 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와 김천 상무의 하나은행 K리그 1 2025 12라운드 경기(광주 1-0 승) 도중 발생했다.

당시 광주는 전반 15분 오후성의 페널티킥 선제골에 힘입어 1-0으로 전반전을 마쳤다.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리자 이 감독은 기다렸다는 듯 그라운드로 뛰어 들어 오후성을 불렀다.

화가 난 표정의 이 감독은 주장 이강현을 뿌리치고 오후성을 강하게 다그친 뒤 밀쳤다. 스승이 제자를 질타하는 장면은 어린이날을

찾아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은 6238명의 관중은 물론 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됐다.

이 감독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공격 축구는 물론 화려한 언변과 넘치는 카리스마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감독이 선수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과도하게 질책한 장면으로 일종의 직장 내 폭행 또는 괴롭힘이 아니냐는 논란이 번졌다.

특히 경기가 열린 날이 평소보다 많은 관중이 방문한 어린이날이었다는 점에서도 이 감독의 지도가 선을 넘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김전전 승리 이후 이 감독은 제자들과 하이파이브를 나눈 뒤 오후성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경기를 마쳤다.

경기 종료 후 오후성은 중계진과의 인터뷰에서 "선수로서 죄송한 일을 저질렀다"며 "감독님께 사과드려야 할 거 같은데, 경기가 끝나고 꼭 안아주세요"고 이야기했다.

이 감독이 주문한 전술이 뭐였냐는 물음엔 "침투 상황을 많이 만들자고 하셨는데, 볼을 받는 상황을 만들어 화가 나셨던 것 같다. (감독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